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젠더’ 표상*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日本語 I・II』를 중심으로-

이은주**

〈요지〉

본 논고에서는 젠더와 교육, 학교교육에 나타난 젠더, 교과서문화와 젠더에 초점을 맞춰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의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은밀하게 감춰진 ‘젠더’에 대한 표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즉 일본어라는 커리큘럼 속에 녹아 있는 ‘성별역할분업’과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의 표상을 둘러싼 저자들의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밝혔다. 특히 여성저자와 남성저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고자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고에서는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삽화와 사진, 그리고 대화내용 또는 문장을 소재로 분석함으로써 ‘일본어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한 학교교육이 여성은 더욱 여성답게 남성은 더욱 남성답게 남녀에게 각기 다른 젠더관을 강하게 심어주는 권력 장치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저자와 남성저자가 고정화된 젠더상을 표상하고 있는 점도 강하게 존재하는 반면, ‘젠더의 이질성’이라는 이중적이고 중층적인 표상을 시도하는 부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저자들이 ‘젠더프리’라는 가능성까지도 시도하려 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논문분야 : 일본어교육

키 워 드 : 일본어 교과서, 젠더, 표상, 여성성, 남성성, 여성문화, 남성문화, 성별역할분업

1. 서론

일찍이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제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했는데, 보부아르는 여성 자체가 여성으로 성립되는 ‘구성물’이라고 지적함으로써¹⁾ 여성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다는 젠더(gender)이론을 새롭게 창안했다.²⁾ 그러나 이와 같은 젠더이론이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논리가 ‘남녀의 차이를 소거하고, 여성들의 헤게모니 쟁취’에 대한 프로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034514).

** 건국대학교 강사, 일본문화

1) 주디스 버틀러·조현준역(2009)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p.147.

2) 본 논고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을 생물학적인 성(性)과는 다르게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구축된 것”(다케무라 가즈코지·이기우역(2003) 『페미니즘』, 한국문화사, pp.53-58)이라고 보는 기존의 젠더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육체적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지(學知)로 보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본 논고에서는 “성적(性的) 행동(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행동) 규범이 어떻게 창출되고 강요되었는가, 권력이 어떻게 남자다움이나 여성다움이라는 문제에 관여했는가, 보통사람들의 생활이나 실천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성적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정되었는가. 그것에 대해 여성은 어떻게 저항하면서 여성이 창출되었는가”(ジョン. W. 스코트·荻野美穂訳(2004) 『ジェンダ-と歴史学』, 平凡社, p.14)라는 의미에서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재조명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공간다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권력담론의 재생산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단일적 논리나 사회/문화적 요소로만 파악하려는 젠더논리에 대해 “권력은 거부될 수도 철회될 수도 없다. 다만 재배치될 뿐”이라고 주장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유명한 명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버틀러는 해방이란 완전한 의미의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으로의 이양에 불과함을 뜻하는 것으로, 여성의 해방조차도 누구를 위한 어떤 해방인지 역사적으로 맥락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³⁾고 주장하면서 젠더이론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따라서 필자는 버틀러의 학문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분법의 전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착안하면서 보다 열린 시각으로 ‘젠더’가 기술될 수 있음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교과서 속에 숨겨진 남녀의 문화 창출에 관한 커리큘럼을 파악하고 학교교육과 연결하여 젠더프리(gender-free)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교과서라는 미디어분석을 통해 시도한다.

먼저 남녀의 성별역할분업은 사회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편성에 의해 감춰진 커리큘럼이 존재한다는 입각점에서 본 논고에서는 젠더와 교육, 학교교육에 나타난 젠더, 교과서문화와 젠더⁴⁾에 초점을 맞춰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의 고등학교 일본어⁵⁾ 교과서 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젠더’에 대한 표상⁶⁾을 규명하는 것을 시도한다. 즉 일본어라는 커리큘럼 속에 녹아 있는 ‘성별역할분업’과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의 표상을 둘러싼 저자들의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밝히고자 한다.⁷⁾ 특히 여성저자⁸⁾와 남성저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삽화와 사진, 그리고 대화내용 또는 문장을 소재로 분석해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저자들의 인식 또는 집필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적절한 자료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고 문화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다.⁹⁾ 문화에 대한 분석은 제7차 교육과정과 제7차 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 역시 문

3) 주디스 버틀러·조현준역(2009) 앞의 책, pp.318-319. 즉 이는 여성이 기득권을 쥔 사회를 재구축해낸다 해도 그것이 여성상위·남성하위라는 이분법의 전복을 의미한다면 결국 그것은 헤게모니 권력의 쟁탈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을 동반하는 순환의 연속으로 다시금 매몰된다는 경고이다.

4) 木村涼子(1999) 『学校文化とジェンダー』, 勁草書房, pp.1-274. 木村涼子(2008) 『ジェンダーで考える教育の現在(いま):フェミニズム教育学をめざして』, 部落解放・人権研究所, pp.1-211. 木村涼子他(2010) 『教育の社会学:<常識>の問い方, 見直し方』, 有斐閣, pp.1-304. 기무라 료코(木村涼子)는 학교교육이 남녀평등과 차별이라는 양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학교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개념을 교육하는 성(性)차이를 재생산하는 논리를 밝혀내고 있다. 또한 小山静子(2002) 『子どもたちの近代:学校教育と家庭教育』, 吉川弘文館, pp.1-183, 小山静子(2009) 『戦後教育のジェンダー-秩序』, 勁草書房, pp.1-272. 고야마 시즈코(小山静子)는 전후 제도화된 남녀공학과 여자고등교육을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형성되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온 것인지를 해독하고 있고, 남녀에게 동등하게 열린 교육제도와 젠더에 따른 교육의 차이라는 이중구조를 밝히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에 내재하는 젠더질서의 모습을 해명하고 있다.

5) 본고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日本語Ⅰ・Ⅱ』, 즉 총 24권을 모두 다루었다.

6) ‘표상’은 representation을 번역한 말로 representation은 ‘표상하다’는 뜻 이외에 ‘재현하다’, ‘대표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사물을 눈앞에 재현하거나 사물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표상체계는 무언가를 떠올리도록 해주는 개념이나 상상, 판단의 체계를 말하며 개인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개 집단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이진경(2006) 『철학과 굴뚝청소부』, 그린비, p.355).

7) 여기서 필자가 저자들을 비평 또는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8) 제6차 교육과정기 일본어 교과서의 여성 집필자에는 이숙자, 이봉희, 김효자, 양순혜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집필자는 남성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제2차~제7차 개정까지의 저자들은 대개 남성저자들이다.

화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으로 삽화나 사진에 대한 분석¹⁰⁾도 소수에 불과할 뿐 젠더에 관한 분석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6차 교육과정¹¹⁾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젠더에 관한 분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은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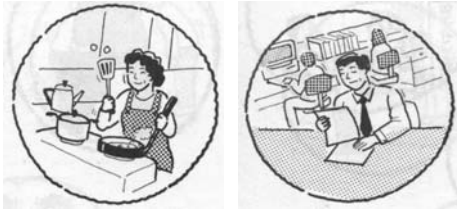
1990년대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제6차 교육과정기인 1996년에는 IMF가 있었다. IMF라는 '비상시'에는 국가와 개인을 하나로 묶어 위기상황 타개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의 역할'에 대해 더욱 더 의도적인 교육사상이 강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가차원에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무의식적이었음지도 모르는 '성별역할분업'을 '자각시켜' 더욱 강화해야만 했던 사정이 존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교과서 속에서 여성문화와 남성문화를 확실히 구분 짓는 성별역할분업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으로 나누어 학생들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젠더화된 공간과 일상적 서사

2.1 남성화된 공적 장소와 여성화된 사적 장소

교과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안(사적 영역)=가사·육아라는 여성문화와, 남성=밖(공적 영역)=사회일이라는 남성문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아내의 집에 있고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는 가정에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¹¹⁾

-
- 9) 신순덕(1999) 「고등학교 日本語 教科書의 文化 内容 分析 :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대 석사논문, 이운정(2004) 「일본어 교과서(I·II)에 나타난 문화 내용 분석 : 제 6·7차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이운정(2005)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젠더표현의 비교분석 : 제 6·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논문이 있다.
- 10) 채미경(2002)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삽화분석 :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I를 중심으로」, 부산외대 석사논문, 노재성(2004)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삽화 분석 :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 I』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논문, 방정희(2006)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삽화 오류분석에 관한 연구: 제 7차 교육과정 『日本語 I』 교과서를 대상으로」, 경남대 석사논문, 왕영선(2008)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차표현분석 :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부산외대 석사논문, 이성진(2009)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I 교과서의 문화 관련 사진 분석」, 단국대 석사논문 등이 있다. 이처럼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분석이 확연하게 많은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이 “문화자체가 소재가 되는 문화를 중시한 교육과정”(조문희(2011) 『일본어 교육사』 하, 제이앤씨, p.328)이기 때문이다.
- 11) 『고등학교 日本語 I』를 1로 『고등학교 日本語 II』를 2로 약칭한다. 그리고 이숙자·안병곤은 A로, 장남호·김우열은 B로, 이현기·이한섭은 C로, 김채수·황명천은 D로, 유길동·여선구·양갑용은 E로, 이인영·이종만은 F로, 유용규·전태중은 G로, 김효자는 H로, 이봉희·쓰네이시 노조무는 I로, 김봉택·양순혜는 J로, 박희태·최충희는 K로, 안병곤의 4명은 L로 표기해두기로 한다. 예를 들어 이숙자·안병곤의 『고등학교 日本語 I』의 경우 A1이 된다. 순서는 필자가 임의대로 정한 것임을 밝힌다.



〈그림1〉 C1, p.63



〈그림2〉 D2, p.187, p.189

아버지의 영역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증거로서 D2를 보면 회사에서 회의하는 모습과 회사운영에 대해 회의하는 모습에 남자만을 등장시키고 있는 점에서 그것을 확실히 입증해준다. 즉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회일에 여성이 배제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여성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내몰고 남성을 사회일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규정지어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다시 말해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차별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H1은 남녀의 성별역할분업이 극명하게 드러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한국인의 가정을 방문한다는 설정으로 다음 문장은 여성=안=가사, 남성=밖=사회일로 젠더질서를 확실히 구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おねえさんは部屋のそうじをしています。絵をかけたり、きれいな花を生けたりしています。
 おかあさんは食べ物を作っています。いろいろな料理ができています。
 今日はおとうさんも早く帰っています。(H1, p.112)

위의 문장만을 보더라도 어머니의 영역은 가정으로 집안에서 가사를 전담하고 아버지의 영역은 밖(회사: 필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남성이 대표되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사고라 말할 수 있다.¹²⁾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일예의 참여율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음에도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J1에서도 부인이 항상 집에 상주하고 있어 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거나, 어머니의 일이라고 간주되는 청소 등의 가사를 딸이 돕는 삽화 및 문장 또는 육아모습을 통해 성별역할분업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삽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모두 전업주부임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저자들은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주된 활동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만드는 삽화와 예문을 많이 쓰고 있다.¹³⁾

12)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

구분	1990년	1995년	1998년
남자	74.0%	76.5%	75.6%
여자	47.0%	48.3%	49.5%

*자료: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림3〉 J1, p.154



〈그림4〉 J1, p.179



〈그림5〉 J1, p.199

그런데 여기서 특히 눈에겨볼만한 것은 H1에서 「4. 나의 하루(私の一日)」(〈그림6〉 H1, 57)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하루일과'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5. 무엇을 합니까(何をしますか)」(〈그림7〉 H1, p.70)에서는 '여성의 하루일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6〉 H1, p.57



〈그림7〉 H1, p.70



〈그림8〉 H1, p.69

〈그림6〉을 보면 기상→식사→승차→등교(수업시작)→수업시간→하교→심부름→취침이라는 순환을 통해 학생의 일과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8〉에서 특히 눈에겨보아야만 하는 것은 저자가 '남녀의 하루일과'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그림8〉 H1, p.69). 첫째 집안에서 하는 일(청소, 빨래, 세수하기), 둘째 밖에서 하는 일(쇼핑, 운전, 친구와 대화하기), 셋째 직업적으로 하는 일(노래, 교육,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의 집안에서의 일은 여성의 전유물로 되어 있고 두 번째의 쇼핑은 여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며 자동차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운전하는 사람이 남성으로만 설정되어 있다. 즉 운전은 마치 남성들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친구와 대화하기는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있다. 세 번째의 가수(노래)는 남성의 일로, 교육은 남성과 여성의 일로, 운동(축구)은 남성의 일로 구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C1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 운동을 하는 인물은 남성이고 낮과 밤에 장비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여성(아줌마)으로 설정되어 있다(C1, p.16). 이는 여성이 사회에서의 역할보다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적합함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남성의 하루일과'도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즉 G2에서는 「13. 아버지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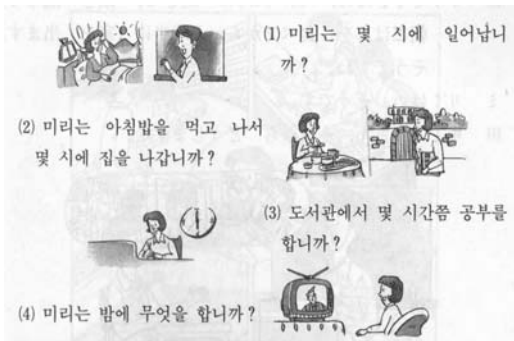


〈그림9〉 G2, p.146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하루일과를 다루고 있다(그림9) G2, p.146). 앞의 H1과 마찬가지로 한 장으로 독립시켜 제시하고 있다.

위의 예문들은 저자도 다르고 교과서도 각기 다르지만 남녀의 성별역할분업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텍스트라 여겨진다. 특히 E1에서 학생들의 하루일과도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저자는 쓰기연습의 하나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의 공간(영역)과 역할(본분)을 부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계가 항상 등장(시계: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상징적 장치)
 -기상→등교→수업→하교→공부→취침의 순서 (E1, p.159)



〈그림10〉 I1, p.129

물론 E1에서도 하루일과(기상→식사→운동→등교)라는 일상생활을 통해 학생들을 규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I1에서도 역시 하루일과를 다루고 있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두 번에 걸쳐 싣고 있는 점이다.¹⁴⁾

이처럼 저자들이 어머니·아버지·학생이라는 대상을 다르게 할뿐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각기 다른 성별역할분업을 주입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저자들이 '하루일과'를 통해 가정이라는 생활 속에서 여성(어머니)·남성(아버지)·자식(학생)이 각각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시간을 분배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규율 있는 생활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성성 또는 남성성 또한 일상생활을 통해 규정되고 있음을 찾아낼 수가 있다.

2.2 여성의 역할과 현모양처사상, 모성의 신화화

텍스트에 담겨진 여성은 현모양처¹⁵⁾의 모습을 띠고 있다. J1를 보면 여러 가지 삽화를 통해 어머니의 역

14) 각각 pp.97-99, pp.129-131에 걸쳐 싣고 있다. J1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J1, p.91). 특히 L2에서는 하루일과를 일기로 써보는 연습까지도 게재하고 있다(L2, p.27). 왜냐하면 시간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는 일기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15) 일본에서 '양처현모'라는 용어는 메이지기(明治期) 이후에 등장했고 유교문화권의 '본가'인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현처양모'와 '현모양처'라는 용어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등장했다(小山静子(2004)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p.5).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모양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현모양처'는 어진 어머니인 동시에 착한 아내라는 뜻으로 여성에게 요구된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이다. 현모양처사상은 서구

할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다(〈그림11〉 J1, pp.100-105).¹⁶⁾



- 〈삽화①〉 어머니가 아침에 딸을 깨우는 장면(J1, p.102)
- 〈삽화②〉 어머니가 식사하라고 부르는 장면(J1, p.100)
- 〈삽화③〉 어머니가 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장면(J1, p.105)
- 〈삽화④〉 어머니가 외출하는 딸을 배웅하는 장면(J1, p.101)
- 〈삽화⑤〉 어머니가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딸을 맞이하는 장면(J1, p.101)



〈그림12〉 H1, p.59

위의 삽화들을 통해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외출하는 딸을 현관 앞까지 나와서 배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역할은 가사(청소, 세탁, 설거지) 뿐만 아니라 자식을 돌보는 일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H1을 보면 아버지는 TV 앞에서 신문을 읽고 있고 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며 딸은 어머니를 도와 식사준비를 하는 장면이 절정을 이룬다. 삽화를 페이지의 반이나 할애해서 신고 있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그림12〉 H1, p.59). 이는 가사가 어머니와 딸로 대표되는 여성의 일로 남편

은 가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 내의 가사가 여성의 전유물로 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G2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딸은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다. 다음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¹⁷⁾

ex) 日曜日に母の仕事をお手伝いします。(G2, p.67)

에서 18세기경 자본주의화에 의한 근대가족이 나타나면서 공사영역의 분리와 함께 형성되었다. 조선에서는 개화기에 근대화의 일환으로 강조되었다.

- 16) 이와 비슷한 문장을 F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을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깨우기도 한다(F2, p.62). 또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과일을 깎아주거나 딸을 위해 요리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성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F2, p.90).
- 17) “집에서는 어머니를 도와드립니다(家では母の手伝いをします。)”(G2, p.59)라는 문장과 “어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母の仕事を手伝いました。)”(H1, p.88)라는 문장을 많이 볼 수 있다.

위의 문장을 통해 설거지와 요리를 하는 것은 ‘어머니의 일(母の仕事)’로 규정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사는 여성의 일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인 딸까지 어머니를 도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3>을 보면 자녀교육(공부)¹⁸⁾ 역시 어머니의 역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14>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육아까지도 여성의 몫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림13> A1, p.200



<그림14> D1, p.10



<그림15> G1, p.178

또한 여성은 밖에서 돌아오는 자식과 남편을 반갑게 맞이해 주어야만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¹⁹⁾ 가정은 심신을 위로하는 장소로 밖에서 공부나 회사일로 심신이 지쳐 돌아오는 남편과 자식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정에 머무는 여성은 자식과 남편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 역할자인 것이다.

특히 <그림15>를 보면 자식을 돌보고 아픈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아픈 자식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이며 아픈 자식을 걱정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는 어머니는 사랑을 가진 존재로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모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걱정하는 상냥하고 자상한 어머니를 표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3 여성문화와 남성문화의 허구성

저자들이 일본의 대표적 상징인 ‘후지산’²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듯이 ‘기모노를 입고 다도하는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왜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기모노를 입은 여성’ 또는 ‘다도하고 있는 여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16> F1, 표지



<그림17> A1, 표지



<그림18> E2, 표지

18) 또 다른 예로서 H2를 보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는 집에서의 자녀교육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H2, p.43).

19) C2, p.115와 H2, p.68에 실려 있다.

20) 제6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日本語 I·II』의 저자들은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후지산, 스모, 신칸센, 벚꽃, 일본의 연중행사 등을 공통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자들은 쇼핑과 관련된 삽화에 주로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G1에서 일본인 여학생이 언니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스킨크림을 사기 위해 스킨크림 가게로 쇼핑 하러 갔는데, 이때 함께 간 한국인 남학생의 태도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즉 그 남학생은 여학생과 동행하며 안내만 할뿐, 전체적인 내용은 점원과 손님인 여학생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 남학생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서도 입증된다(〈그림19〉 G1, p.135). 즉 저자가 소비활동, 즉 쇼핑관련은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9〉 G1, p.135

반면 B1의 「15.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旅行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를 보면 제주도여행을 다녀온 경험과 소망, 권유를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남성이 주체로 남성을 동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여행관련 주제는 남성등장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서비스관련 항목에는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B1에서 손님

에게 차를 대접하는 쪽은 항상 여성이고 대접받는 쪽은 남성이다.²¹⁾ 그리고 L2에서 여학생이 할아버지에게 길을 안내²²⁾하는 것을 묘사한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서비스하는 존재임을 드러낸 예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²³⁾하는 등의 봉사활동은 여성의 역할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대개 일본문화의 하나로 히나(雛)마쓰리와 고이노보리(鯉のぼり)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본의 연중행사도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여 여자는 여자아이답게 남자는 남자아이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으며 저자들도 그러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저자들은 일본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어 교과서 속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남녀의 이분법적 논리와 이데올로기가 작동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20〉 H2, 표지



〈그림21〉 H2, 표지

특히 H2에는 〈기모노를 입은 소녀와 여인〉이라는 제목을 붙인 사진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²⁴⁾ 그런데 대부분의 저자들이 기모노를 입고 다도하는 여성을 표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F2에서는 남성들의 스모하는 모습²⁵⁾을 신고 있다. 그것은 마치 남성은 힘이 세고 강한 체력을 가진 존재임을 과시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즉 이는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예라 할 수 있다. J1를 보면 취미에 관한 내용에서도

21) B1, p.146.

22) L2, p.100.

23) L2, p.70.

24) H2, 표지.

25) F2, 표지.

여성의 취미는 ‘인형 모으기’로 설정되어 있고 남성의 취미는 ‘배구’로 설정되어 있다.²⁶⁾ 이는 여성이지만 남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남성이지만 여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여성다움’을 남성에게는 ‘남성다움’을 심어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K2에서는 여성이 인형을 좋아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여성스러움/남성스러움이 라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다음 듣기문장을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A:あなたの妹さんは何をほしがっていますか。
 B:人形をほしがっています。(K2, p.127)

그와 동시에 텍스트에 등장하는 직업 중 간호사의 경우는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간주되어 있다. 의사와 선생님의 경우는 남녀가 다양하게 게재되고 있는 반면 간호사의 경우는 여성으로만 설정되어 있다. 특히 E1을 보면 여자 간호사만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림22〉 E1, p.207, p.212

대부분의 저자가 여성을 간호사, 의사, 선생님, 서비스직(가게점원, 우체국직원, 빵집점원, 커피숍직원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온정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비스업은 친절을 베푸는 직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는 편견이 깔려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남성의 직업으로는 웨이터나 문구점 주인도 등장하지만 대개 회사원, 의사, 선생님, 교장선생님, 화가, 사장 등이다. 즉 이는 남성의 직업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직업

26) J1, p.61. 특히 스포츠(운동) 중에서 야구, 축구, 탁구 등은 남성이 주로 등장(A1, p.53와 G1, p.77)하는 반면 여성은 수영(G1, p.147)이나 테니스(E1, p.115)와 관련된 삽화에 등장한다. 역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운동은 남성만이 가능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이나 테니스의 경우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반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남성에게만 해당된다(F1, p.145).

은 보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촉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남성의 직업에 비해 여성의 직업이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자들이 단어(어휘)를 설명할 때 어떠한 삽화를 선택했는지를 살펴보자. H1에서는 사랑(あい)이라는 단어에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리고 있는 모습을 선택하고 있다.²⁷⁾ 그리고 준비(したく)라는 단어에는 어머니가 식사준비하고 있는 모습²⁸⁾을, 취미(しゅみ)라는 단어에는 여성이 꽃꽂이를 하고 있는 모습²⁹⁾을, 기술(ぎじゅつ)이라는 단어에는 남자기술자의 모습³⁰⁾을 담고 있다. 또한 J1에서 웃는 얼굴(えがお)이라는 단어에 여학생의 웃는 얼굴을 묘사하고 있다.³¹⁾ 이는 저자가 여자에게는 여성문화를, 남성에게는 남성문화를 심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자들은 '여성문화'로서의 '여성다움'을, '남성문화'로서 '남성다움'이라는 허구성을 남녀에게 각기 다른 젠더관을 심어주고 있는 예라 하겠다.

3. 젠더질서의 재생산공간과 교육의 정치성

3.1 학교교육

젠더질서의 재생산공간이라 할 수 있는 학교와 가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학교에서의 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E1을 보면 금지표현을 가르치는 장면에서는 예를 들어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잔디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에는 길을 건너서는 안 된다. 주차금지 지역에서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작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³²⁾라는 표현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본어라는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까지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³³⁾ 특히 L2에서는 「8. 부모효행과 경로(親孝行と敬老)」라는 주제로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사회와 가족을 위해 일해 온 노인들께 귀중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로라고 생각합니다.”³⁴⁾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도 소중히 합시다”³⁵⁾라고 적고 있다.

예의 또는 예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G2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말하는 부분에서 “지하철 안에서 노인이 타면 반드시 자리를 양보한다”³⁶⁾는 문장과, 한국을 일컬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생각했다”³⁷⁾는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에

27) H1, p.6.

28) H1, p.9.

29) H1, p.11.

30) H1, p.12.

31) J1, p.10.

32) E1, p.214.

33) 비슷한 문장으로 G1에서 금지표현을 가르치는 장면에서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공원의 나무를 꺾어서는 안 된다. 도로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 길에 휴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G1, p.181)라는 문형연습을 통해 일본어의 금지표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측면까지도 주입시키고 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

34) L2, p.104.

35) L2, p.105.

36) G2, p.51.

37) G2, p.51.

대한 대답으로 남성등장인물이 “우리들은 어른을 공경하라고 어릴 적부터 배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마음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도 좋은 전통은 지키고 싶다”³⁸⁾는 문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H2에서 저자는 “각 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며 우리의 것을 되도록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³⁹⁾ 또는 “조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금지를 갖고 남의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올바른 태도”⁴⁰⁾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K2에서 “학생에게는 무엇보다도 공부가 소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⁴¹⁾라고까지 언급한다.⁴²⁾ 이처럼 학교교육은 일본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남성을 더욱 남성답게’를 강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가정교육

교화의 시작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는데 그 다음으로 제2의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교육⁴³⁾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



〈그림23〉 F2, p.103



〈그림24〉 F2, p.117



〈그림25〉 H2, p.111

오늘날 해체된 가족의 모습⁴⁴⁾이나 대화가 단절된 가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다. F2에서는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핵가족이 아닌 3대가 모여 사진 찍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H1에서도 아버지·어머니·딸·아들 4인 가족이 응접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담고 있다.⁴⁵⁾ H2에서도 설날에 할머니·할아버지께 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단란한 가족상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⁶⁾

38) G2, p.51.

39) H2, p.86.

40) H2, p.140.

41) K2, p.84.

42) 그밖에도 K2에서는 ①예절교육, ②일기쓰기, ③독서하기, ④편지쓰기, ⑤노인공경하기, ⑥환경보존·자연보호하기, ⑦한국문화와 한글교류 등에 대해서도 게재하고 있다.

43) 사와야마 미카코(沢山美果子)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가정교육은 1882년(明治15) 학교교육의 하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沢山美果子(2013)『近代家族と子育て』, 吉川弘文館, p.221).

44) J2에서는 여성등장인물이 고아원을 방문한 후 자기반성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부터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자”(J2, p.23)고 다짐을 하는 장면이다. 이는 여성등장인물이 고아원을 갔다 온 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45) H1, p.67.

46) J1에서 단어를 설명할 때 가족(かぞく)이라는 단어에 아버지·어머니·아들로 구성된 3인가족의 모습을 게재하

이처럼 대부분의 저자들은 아버지·어머니·자식 또는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자식이라는 가족구성원인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었다. 즉 이는 대부분의 저자들이 학생들에게 단란한 가족의 이미지라는 환상과 가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의식을 부여해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3 차별과 배제

사람(人)이라는 어휘를 설명하는 삽화에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고 남성만을 담고 있다.⁴⁷⁾ 그리고 I1을 보면



〈그림26〉 I1, p.160

가족호칭⁴⁸⁾을 설명할 때 눈에 띄는 것은 기준이 되는 내(わたし)가 남자로 설정되어 있는 점이다(〈그림26〉 I1, p.160).⁴⁹⁾ L1에서도 역시 남자가 기준이다.⁵⁰⁾ 이는 여성이 인간(人)의 범주에 편입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면 딸과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장외를 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그림 27〉 C2, p.141).⁵¹⁾



〈그림27〉 C2, p.141

이처럼 걸으려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앓은 자세만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계층과 차별이 존재함을 읽어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상냥하고 친절함 어머니 사이,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는 히에라르키(Hierarchie)가 존재

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은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2를 보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때, 특히 추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송편을 빚는 일에는 여성들만이 참여하고 있고 차례(제사)를 지낼 때에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다. 이는 남존여비사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 있다(J1, p.11). 그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딸로 이루어진 3대가 모여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담기도 하고(J1, p.15) 가족이 잔디 위에서 한가롭게 아이들과 노는 사진을 담기도 한다(J1, p.197).

47) D1, p.4와 E1, p.6와 J1, p.6, p.60에 표현되어 있다.

48) B1을 보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가족의 호칭을 설명할 때 남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여성 순으로 연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 의식이 녹아 있는 예라 할 수 있겠다(B1, p.32).

49) 그러나 제7차 개정 『고등학교 일본어 I』를 보면 가족호칭을 설명할 때 기준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다(그 한 예로서 김옥임 외 3명, 『고등학교 일본어 I』, 지학사, 2012, p.186 참조).

50) L1, p.55.

51) 또 다른 예로서 아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있는 반면, 남편은 편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D1, p.3).



〈그림28〉 E2, p.107



〈그림29〉 E2, p.109

그 뿐만 아니라 A2의 「제6과 한자의 기능(漢字の働き)」에서 ‘자동(自動)’이라는 한자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남자는 자동문을 지나갈 때 앞에 가고 여자가 남자의 뒤에 따라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⁵²⁾ 이는 남녀 간의 계층, 남녀 사이에는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소외와 배제시키는 것 역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4. 젠더 프리(Gender-free)의 가능성 모색

4.1 다양한 어머니의 이미지

앞의 전통적인 어머니의 이미지와는 달리 I2에서 특이한 것은 어머니의 자식사랑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치원에서는 5살 정도의 어린이들이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오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을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그 결과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논하고 있다.

①점심시간에 어머니가 유치원으로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경우→그 어린이는 어머니의 애정을 받고 있어 행복한 어린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 어린이는 몇 번이고 또 다시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올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아무리 잊어도 친절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다.

②결코 도시락을 유치원에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어린이들 사회에서는 창피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그 아이는 배가 고파 괴로웠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그 아이는 ‘창피함’과 ‘공복’을 몸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결코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오지 않을 것이다. (I2, p.91)

그렇다면 여기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는 과연 어느 쪽일까. 저자는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고 자식의 독립심을 키워 자식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의 어머니일까?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닌 존재, 보살피주는 존재가 아니라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획일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52) A2, p.72.

그 뿐만 아니라 K2에서도 전통적인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어머니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남학생의 친절을 거절하는 문장이 있다.⁵³⁾ 그 어머니가 만일 보통 일반적인 어머니였다면 어린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식을 과잉보호하지 않기 위해 또는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거절했을 것이라는 화자의 아버지의 말을 통해 전통적인 어머니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의 어머니상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4.2 탈장소와 탈여성성·탈남성성의 가능성

지금까지는 여성의 영역이 가정으로만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여성의 탈장소화를 엿볼 수 있는 문장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G2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 어머니는 가정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私は子供の頃から一人で留守番をすることが多かったんです。母が仕事をもっていますから、(G2,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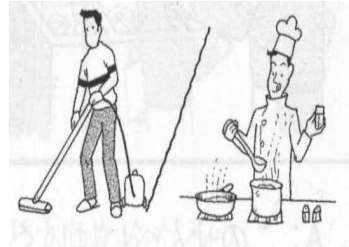
즉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니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혼자서 집을 지키는 적이 많았다는 예문을 통해 여성의 영역이 가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사회일로 확대되었음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여성이 주로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과는 달리 남자아이가 청소하는 장면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자들이 '기모노를 입고 다도하는 여성'을 게재했다면 J1에서 '기모노차림의 다도하는 남성'을 표지에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30〉 E1,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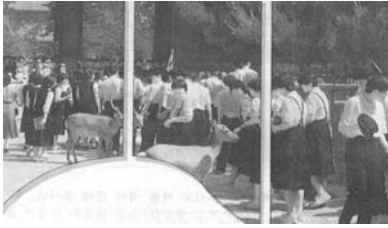
〈그림31〉 J1, 표지



〈그림32〉 H2, p.104

또한 H2에서 남성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모습과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잉여부분을 읽어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저자들은 여학생에 대한 묘사로 의상은 치마, 머리모양은 단발 또는 긴 생머리를 하고 있고, 남학생은 바지 또는 반바지착용을 선택했다. 그런데 앞에서 저자들이 복장이나 차림새 또는 머리모양을 획일적으로 묘사를 한 것과는 달리, K1에서는 실제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실기도 하지만 여학생이 교복으로 바지를 입을 삼화를 담고 있는 것에서도 잉여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

53) K2, pp.90-91.



〈그림33〉 K1, p.142



〈그림34〉 K1, p.1

이처럼 소수의 저자들이지만 젠더프리의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말할 수 있다.

4.3 다양한 모습의 가족형태

저자들은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아버지·어머니·딸이나 아들인 3인 가족 또는 4인 가족이 대표적인 가족으로 또는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자식으로 구성된 3대가 모여 사는 가족의 모습을 게재하고 있다.



〈그림35〉 J2, p.5

있다(〈그림35〉 J2, p.5). 그러나 같은 I2에서는 카드놀이를 할 때 여성과 아이들만 하고 남성인 아버지가 부재되어 있는 장면도 신고 있다.⁵⁴⁾

그리고 E1를 보면 사랑(あい)이라는 단어에 대한 삼화로 남녀의 웃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에서 이성애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⁵⁶⁾ 그 뿐만 아니라 G2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복을 입은 신랑·신부⁵⁷⁾를 신고 있는 것에서도 이성애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1의 표지에서도 역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36〉 F1, 표지).

반면 E1에서는 가족구성원에서 아버지가 부재하는 가족사진(어머니·딸·아들)과, 아버지가 존재하는 가족사진(아버지·어머니·딸·아들)을 함께 게재하고 있다.⁵⁴⁾ J2에서는 기모노를 입고 가족이 모여 가루타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신고



〈그림36〉 F1, 표지

이처럼 대부분의 저자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버지·어머니·자식이 있는 구도 또는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자식이라는 구성원을 가족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저자들이 ‘보이지 않는’ 잉여부분까지도 묘사하려고 했던 점은 괄목할만하다.

54) E1, p.50.

55) I2, p.85.

56) E1, p.4.

57) G2, p.83.

5. 결론

이상으로 필자는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젠더'에 대한 표상을 고찰해보았다. 일본어 '어학'수업이라는 이유에서 정상적인 가족의 이미지나 역할에 대한 학습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본어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한 학교교육은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남성을 더욱 남성답게 남녀에게 이처럼 각기 다른 젠더관을 강하게 심어주는 권력 장치의 하나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교육과 지식이 가진 '인간 내면의 지배논리', 즉 모든 지식은 권력의 전략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 생성되고 발전할 수 없는 것으로 지식과 권력은 뗄 수 없는 하나의 복합체적인 의미에서 마찬가지로의 점이다. 교과서를 통해 전달되는 지식도 결국 그러한 역할분담이나 인간의 내면 속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과서를 꼼꼼히 검토해보면 여성저자와 남성저자가 고정화된 젠더상을 표상하고 있는 점도 강하게 존재하는 반면, '젠더의 이질성'이라는 이중적이고 중층적인 표상을 시도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젠더이미지만 존재'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벗겨 해주는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더 나아가 소수의 저자들이 '젠더프리'라는 가능성까지도 시도하려 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특히 '긍정성'과 '부정성'이라는 양면을 가진 학교교육(특히 교과서)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식이라는 카테고리의 재편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학교교육(교과서) 안에서 '이수'나 '수업'이라는 일관된 문화적 해택 속에는 그 사회·문화적 역할분담이라는 이미지가 기정사실화되어 출현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 속에 은폐된 '제2의 자연'이라는 문제를 재고할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교과서에 실린 '젠더프리'의 개념은 앞으로 재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학교는 바로 '사회·문화적 권력'이 작동되는 곳을 새롭게 인지하면서 내면의 심상지리의 재배치를 고려하는 교육 '교과서'이어야만 할 것이다.

【参考文献】

- 권김현영공저(2011)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다께무라 가즈코저·이기우 옮김(2003) 『페미니즘』, 한국문화사.
 리사터틀저·유혜련/호승희공역(1999) 『페미니즘 사전』, 동문선.
 미셸 푸코저·오생근역(2005)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박미선(1999) 「젠더」 『여/성이론』 제1호, pp.317-319.
 신순덕(1999) 「高等学校 日本語 教科書の 文化 内容 分析 :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대 석사논문.
 이은정(2004) 「일본어 교과서(I·II)에 나타난 문화 내용 분석 : 제 6·7차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이윤정(2005)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젠더표현의 비교분석 : 제 6·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논문.
 이진경(2006) 『철학과 굴뚝청소부』, 그린비.
 조문희(2011) 『일본어 교육사』 하, 제이앤씨.
 주디스 버틀러저·조현준역(2009)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 줄리아 우드저·한희정역(2006) 『젠더에 갇힌 삶』, 커뮤니케이션북스.
- 질리언 로즈저·정현주역(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
-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 木村涼子(1999) 『学校文化とジェンダー』 勁草書房.
- _____ (2008) 『ジェンダーで考える教育の現在(いま):フェミニズム教育学をめざして』 部落解放・人権研究所.
- _____ 編(2009) 『ジェンダーと教育』, 日本圖書センター.
- _____ 他(2010) 『教育の社会学:<常識>の問い方, 見直し方』, 有斐閣.
- 小山靜子(2002) 『子どもたちの近代: 学校教育と家庭教育』, 吉川弘文館.
- _____ (2004)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 _____ (2009) 『戦後教育のジェンダー秩序』, 勁草書房.
- 沢山美果子(2013) 『近代家族と子育て』, 吉川弘文館.
- ジョン. W. 스코ット·荻野美穂訳(2004) 『ジェンダーと歴史学』, 平凡社.

〈 要 旨 〉

日本語 教科書に表われた「ジェンダー」表象 -第六次教育課程『高等学校日本語Ⅰ・Ⅱ』を中心に-

本論考では、ジェンダーと教育の關係に着目し、学校教育の中に含まれているジェンダー教育の様相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とりわけ、学校教育の中の教科書に焦点をあてて、第6次教育課程期(1992-1997)の高等学校日本語教科書に隠されている「ジェンダー」表象を分析することであった。すなわち、日本語という言語教育が実は、言語教育を掲げながら、人々のジェンダー認識を形成している部分があり、むしろそれを強化していることが浮かび上がってきた。つまり、日本語教育の中に「男女性別役割分業」と「母親のイメージをめぐる談論の形態を具体的に分析することで、男と女の違いなど、教育の名を借りた「ジェンダー文化創出」過程にみることで「男女、母親の役割」における社会的選択と排除の境界を明らかにした。具体的には、教科書を緻密にみていくと、視覚的なイメージとして挿話をよく使用していることから、その挿話及び写真をまずもって取り上げて、それをめぐって繰り返す会話の内容などをも照らし合わせ、その内容を分析した。それを踏まえて、絵とか挿話、写真が「日本語教育」というカリキュラムの中で、学生の「ジェンダー認識」に影響をおよぼす恐れがあり、それは「女性らしい」「男らしさ」「母親らしさ」なども「あたりまえ」のように宣伝していることが見えてきた。これはまさに、ジェンダーイデオロギーを強化する「教育装置」であり、男女の違いとか「母親像」を強化する「固定観念」を作動させ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れは教科書の著者が男女で構成されていながらも、むしろ「男らしさ」そのものの枠をもって「固定化されたジェンダー像」を表象し、ジェンダー秩序の「再編及び強化」であり、ジェンダーフリー理論を再構築する必要性を示唆してくれるものであった。

論文分野：日本文化

キーワード：日本語教科書、ジェンダー、表象、女性性、男性性、女性文化、男性文化、性別役割分業

■ 이은주 (李恩珠)

건국대학교 시간강사

lev174@hanmail.net

- 投稿日：2013년 9월 30일
- 審査開始：2013년 10월 14일
- 審査完了：2013년 11월 13일
- 掲載確定：2013년 11월 18일

<부록>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日本語 I·II」 저자별 키워드 분류

기호	여성문화(여성성)	남성문화(남성성)	성별역할분업
A1	1.기모노차림의 소녀들(표지) 2.직업-은행원	1.스포츠(운동)를 하고 있음 (축구, 야구, 탁구)(p.53)	1.남편-회사출근, 아내-집에서 배웅(p.21) 2.자녀교육(공부, p.200) 3.전화를 받는 사람-여성(p.213, 216)
A2	1.평화를 기원함(p.33)	1.환경보존에 앞장 서는 모습 (p.47) 2.자동문을 나설 때 남자는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따라 감(p.72) 3. 씨름선수(p.153)	*가족의 형태(어머니·아버지·딸·아들로 구성 된 4인 가족)
B1	1.기모노를 입고 다도하는 여 성(표지) 2.서비스관련직업 ①우체국:직원-여성, 손님- 남성)(p.12) ②비디오가게:직원-여성, 손님-남성(pp.98-100)	1.여행하는 남성(pp.110-111)	1.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쪽-여성, 대접받는 쪽-남성(p.146) 2.여자아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반면 남자 아이는 밖에서 놀고 있다(p.36)
B2	1.투어가이드 2.쇼핑관련(점원-여성, 손님 -여성)-p.26	1.체력이나 건강관련 삽화 (p.42) 2.일기를 쓰는 장면(p.52) 3.노인공경(p.61)	1.식사를 대접하는 쪽-여성, 대접받는 쪽-남 성(p.26) 2.어머니가 다다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바느 질하는 모습(p.115) 3.어머니가 딸에게 잘 때에는 전기를 끄라고 하는 장면(p.116)
C1	1.다도를 하고 있는 여성들 의 모습(표지) 2.기모노를 소개하거나 기모노 를 착용한 여성들(p.154) 3.쇼핑관련-여성들이 많이 등 장(p.76), 특히 주방용품(식기, 그릇)가게에는 점원과 고객 모두 여성임(p.78) 4.여성-장작(노래를 부르거나 반터 동물과 노는 장면)(p.103) 5.서비스관련-우체국(직원:여 성, 손님:남성)-p.92	1.남성-동적(운동: 아령, 자전거 겨타기)(p.103) 2.노인공경(남성이 할머니의 짐 을 들어주는 광경)-p.183	1.어머니가 집에서 외출하는 아들을 배웅하는 모습(p.22) 2.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앞치마 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다(p.62) 3.청소하는 장면(p.79) *앉은 모습-남녀의 차이를 알 수 있다(p.60)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여성과 양보하지 않는 남녀를 동시에 보여줌(p.184) *예절강조, 성별역할분담이 극명하게 드러남
	1.여자-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치마나 앞치마를 두 루고 있다. 주로 쇼핑을 함	1.남자-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의상은 바지나 반 바지를 착용함(p.27)	1.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반면 여 자는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p.17) 2.청소하는 여성(p.38)과 청소하는 남성(p.32)

<p>C2</p>	<p>(p.27) 2.기모노를 입고 다도하는 여성의 모습(p.36) 3.장래희망(여자-디자이너)</p>	<p>2.장래희망(남자-공학부)</p>	<p>을 다루고 있다. 3.남자-운동(스포츠)를 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 여자-청소 또는 요리하는 모습을 다룸(p.59) 4.여성(아내)-가정주부(집에서 나갔다 돌아오는 딸을 반갑게 맞아줌) (p.115) *예절강조, 성별역할분담이 극명하게 드러남</p>
<p>D1</p>	<p>1.겉모습-단발에 리본을 머리에 달고 있음(p.8) 2.선생님에게 공손하게 인사(p.14) 3.직업-간호사: 여성, 의사: 남성(pp.155-156) 4.노인에게 자리를 양보(p.184)</p>	<p>1.여행하는 모습(p.10) 2.신사-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나비넥타이를 매고 있음(p.9)</p>	<p>1.육아-어머니의 일(p.10) 2.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여학생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다(p.26) 3.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음(p.198)</p>
<p>D2</p>	<p>1.두 손을 모으고 웃고 있다(p.3) 2.기모노를 곱게 차려 입은 여성들의 모습(표지)</p>	<p>1.아버지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반면 어머니와 젊은 남녀는 모두 무릎을 꿇고 있음(p.3)-한국가정 2.사람이라는 단어에 남성을 등장시킴(p.4) 3.여행관련(p.10) 4.공해와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p.101) 5.환경문제관련-쓰레기를 줍는 모습(p.104)</p>	<p>→앉은 모습을 통해서도 남녀의 계층차이 또는 부모와 자식의 계층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p.3) 1.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육아)- p.10 2.회사에서 회의하는 모습(p.187)이나 회사운영에 대해 회의하는 모습에 남자만 등장시킴 (p.189) *성별역할분업이 드러남</p>
<p>E1</p>	<p>1.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모습(표지) 2.쇼핑에 여성을 많이 등장시킴(p.41, 44, 93, 95, 96, 97, 101, 102, 103) 3.손님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는 장면(p.41, p.45) 4.보살피는 직업으로 간호사의 경우 여성만을 등장시킴 (p.208, 212)</p>	<p>1.다리가 불편한 노인에게 의자에 앉게 하는 장면(p.43) 또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p.180, 182) 2.외국인에게 상냥하게 길을 알려주는 장면(p.180, p.183) 3.사람이라는 단어에 남성만을 등장시킴(p.6)</p>	<p>*청소하는 남자아이가 등장(p.128) *스포츠관련(p.115) ①여자-테니스 ②남자-수영 *남녀학생이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p.26) *가족의 모습-4인 가족(아버지·어머니·딸·아들)</p>
	<p>1.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p>	<p>회의하는 장면에서는 남자들</p>	<p>1.일본인의 집을 방문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p>

E2	<p>다도하는 모습(표지) 2.두 손을 모으고 반갑게 손 님을 맞이함(예의바른 모습) 3.여학생이 요리를 하는 장 면(p.61) 4.체조하는 모습(p.88)</p>	<p>만 등장시킴(p.188)</p>	<p>말고 선물을 준비함(예절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 2.추석에 차례(제사)지내는 것은 남성의 일로 간주(p.107 삽화) 3.추석에 송편을 빚는 것은 여성들의 일로 간 주(p.109 삽화) 4.여성의 영역이 가정 밖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일본의 샐러리맨가정의 모습을 통해 (p.66)</p>
F1	<p>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표 지) 유카타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표 지), (p.65) 1.기모노를 입은 부인 (p.167, p.116) 2.간호사-여자 등장(pp.8-9)</p>	<p>1.마쓰리를 하는 모습(남자들 만 등장)(p.186) 2.스포츠관련에는 남성을 등장 시킴(p.145: 스키, 등산) 3.자전거를 타는 삽화로 여성 과 남성을 등장시키지만, 오 토바이를 타는 것은 남성을 등장시킴(p.145)</p>	<p>1.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p.119) 2.청소를 하는 여성(p.126)</p>
F2	<p>1.보살하는 역할자로서 여성을 등장시킴(p.40)-애완동물을 보살 핏</p>	<p>1.스모하는 모습(표지)-힘이 세고 강한 체력을 과시하는 듯 한 뉘앙스를 풍김 2.스포츠관련(야구, 표지) 3.가부키장면(p.147)</p>	<p>1.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 고 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을 대문 앞까지 나 와 배웅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깨우기도 한다 (p.62). 또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과일을 깎 아주거나 딸을 위해 요리를 하는 모습(p.90) 2.주부가 청소하다가 말고 전화를 받는 모습 (p.119) 3.남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p.134)</p>
G1	<p>1. 쇼핑 관련 (p . 6 5) , (pp.132-134) 2.인형을 가지고 놀음(p.27) 3.여학생의 방안에 인형이 놓 여 있음(p.49) 4.자전거를 타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수영을 함(p.147) 5.히나마쓰리 소개(p.56) 6.직업-간호사(p.177)</p>	<p>1.스포츠관련(p.77)-야구, 축구 2.등산하는 장면(아버지와 아 들)(p.86) 3.취미-낚시(p.87) 4.고이노보리 소개(p.106) 5.가부키(p.209) 6.노의 공연장면(p.210) 7.가구라의 한 장면(p.210) 8.스모(pp.212-213)</p>	<p>*사이클링은 남녀 모두(pp.141- 144) *아픈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 (p.178) *학교교육-금지표현(p.181)</p>
	<p>1.기모노를 입은 여성(p.23) 2.서비스관련 (p.20<빵집>),</p>	<p>1.독서하는 모습(p.27) 2.스포츠관련(야구)(p.27)</p>	<p>*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꽃이나 과일을 사 가지고 감(p.21), (p.193)</p>

<p>G2</p>	<p>p.21<꽃집> 3.피아노를 침(p.66) 4.노인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삽화(p.67)</p>	<p>3.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삽화(p.51) 4.신문을 읽는 모습(p.66) 5.축구를 함(p.97) 6.편지를 쓰는 장면(p.200)</p>	<p>1.어머니가 요리를 만들어주었음(p.28) 2.어머니가 손님을 맞이함(p.193) 3.어머니가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함(p.193) 4.딸은 설거지를 하고 있고 엄마는 요리를 하는 삽화(p.67) *어머니가 전업주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p.30) *예의 또는 예절을 강조(p.51)</p>
<p>H1</p>	<p>1.어머니가 아기에 우유병을 물리고 있는 모습(p.6) 2.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p.9) 3.취미에 꽃꽂이를 하고 있는 모습(p.11) 4.인사를 할 때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한다(p.29) 5.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p.74, p.79, p.111) 6.과일을 깎는 모습(p.77) 7.아기를 데리고 가는 모습(p.141) 8.꽃꽂이를 하는 모습(p.112, p.120) 9.쇼팽관련(p.137, p.140)</p>	<p>1.기술이라는 단어에 남자기 술자의 얼굴을 실고 있다(p.12) 2.남자는 차렷 자세로 고개를 약간 숙인다(p.29) 3.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p.102)</p>	<p>1.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인터폰을 받고 있다(p.25) 2.어머니가 식사를 권하는 모습(p.26) 3.어머니는 요리하고 딸은 설거지를 하는 모습(p.88) 4.청소를 하는 여성(p.111) 5.어머니는 주방에서 식사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으며 딸은 꽃꽂이를 하고 있다(p.112) *성별역할분업이 극명하게 나타남</p>
<p>H2</p>	<p>1.앞치마를 두르고 있다(p.24) 2.빨래를 널고 있다(p.39) 3.청소를 하고 있다(p.39) 4.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p.43)-자식교육 5.피아노를 치고 있다(p.49) 6.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장면(p.68) 7.편지를 쓰는 장면(68) 8.아내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는 장면(p.68) 9.여성이 묘 앞에서 기도드리 는 장면(p.87)</p>	<p>1.성묘(제사)-남자들만 등장 시킴(p.87, p.89) 2.남성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모습(p.104) 3.남성이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p.104)</p>	<p>*남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준비해서 간다(p.21).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딸은 뭘가 정리하고 있는 모습(p.10)</p>

	10.기모노를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p.99)		
I1	1.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다도하는 모습(표지) 2.강강수월래(p.171, p.173) 3.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함	1.가부키(p.180) 2.차렷 자세로 인사를 함 3.스포츠를 직접 하거나 관람하는 것도 남자(p.115)	1.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에서 전업주부임을 알 수 있다(p.112) 2.어머니가 청소를 하는 모습(p.151) 3.가족초청에서 남자가 기준(p.160) 4.다양한 어머니의 이미지(p.91)
I2	1.알뜰 쓰는 장면(pp.46-47) 2.쇼핑하는 장면-여성물만 등장시킴(p.73, p.130) 3.기류타 놀이(카드놀이)할 때 여성과 아이들만 함-남성(아버지)부재(p.85) 4.모장에 관한 내용(pp.90-91) 5.편지를 쓰는 장면(p.109, pp.146-147)	1.일기를 쓰는 장면(p.127)	*성별역할분담 1.어머니-외출 중 2.아버지-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회사에 간다는 설정(pp.128-129)
J1	1.서비스직업-여성(p.77) 2.독서하는 장면(p.52) 3.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p.114) 4.요리하는 모습(p.117) 5.청소하는 장면(p.126) 6.쇼핑관련(p.152, p.167) 7.기모노를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삽화(p.187) 8.취미-인형 모으기(p.61)	1.일기를 쓰는 장면(p.188) 2.편지를 쓰는 장면(p.190) 3.운동(배구)하는 장면, 음악 감상을 하는 장면, 여행을 하는 장면(p.52) 4.스포츠관련(p.114, p.116) 5.컴퓨터기계관련(p.116) 6.취미-배구(스포츠, p.52)	*성별역할분업 1.어머니 또는 부인-집에 상주하고 있어 걸려온 전화를 받는 장면(p.152, p.154) 2.어머니의 일이라고 간주되는 청소 등의 가사를 딸이 돕는다는 삽화 및 문장(p.179) 3.육아(아이)와 놀이주거나 돌보는 삽화(p.199) 4.가족초청을 설명할 때 남자가 중심(p.6, p.60)
J2	1. 기모노를 입은 여학생 페이지를 할애 2.편지를 쓰는 장면(p.7-9) (p.25) 3.알뜰 쓰는 장면(pp.21-23) 4.사랑을 주는 존재(p.26)-동물에게 과자를 주는 삽화 5.쇼핑관련-여성등장(p.26)	1.기모노차림의 다도하는 남성(표지) 2.기계관련-장래 희망: 컴퓨터프로그램(p.52) 3.스포츠(배구)관련(p.53) 4.여행관련-세계여행(p.142)	*가사 관련(p.78)-식사는 요시코 씨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다(문장)
	1.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의 사진(겉표지) 2.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무릎	1.편지를 쓰는 모습(p.145) 2.스포츠관련(p.72, p.148, p.152)	*일기쓰기장려(p.146) *선생님께 남녀학생 모두 공손하게 인사하는 삽화(p.11)

K1	<p>을 꿰고 있는 삽화(p.11) 3.야구를 좋아하지 않음(p.81) 4.청소하는 모습(p.128) 5.독서하는 모습(p.158) 6.직업관련(간호사:여성)-p.167</p>		<p>*하루일과(기상→체조→세수→아침식사→등교)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권장하는 삽화(p.84)</p>
K2	<p>1.가면을 입은 여자(아)의 사진(삽화) 2.편지를 쓰는 모습(pp.18-19) 3.여학생이 노부부에게 자기를 양보하는 광경(p.129) 4.여학생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인형이라고 대답(p.127)</p>	<p>1.일기를 쓰는 장면(p.129) 2.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이야기(pp.152-153)</p>	<p>*수학여행(p.35)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pp.78-79) *다양한 어머니상을 알 수 있음(pp.90-91) *학교교육(p.84)</p>
L1	<p>1.신부가 기모노를 입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표지) 2.기모노를 입은 인형(표지) 3.기모노를 입은 여성(p.17, p.120) 4.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 사람-어머니(p.85:대화문) 5.기모노를 입고 식사를 하는 모습(p.101) 6.쇼핑관련(p.152)-여성들만 등장 7.요리하는 장면(p.152) 8.쇼핑관련(p.50)</p>	<p>1.양복을 입은 남성 2.스포츠관련(p.32)-야구, 축구 3.아버지-회사에서 근무(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p.76)</p>	<p>*성별역할분업 여자=가정(안), 남자=회사(밖) *독서(p.82, p.152) *편지쓰기(p.82, p.152, p.174) *가족호칭에서 남자가 중심(p.55)</p>
L2	<p>1.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삽화(p.70) 2.요리하는 모습(p.42) 3.기모노를 입은 모습(p.46) 4.장애인(신체)가 부자유로운 사람을 보살피는 모습(p.70) 5.노인에게 길을 알려줌(p.100) 6.세탁기에 빨래를 하는 모습(p.165)</p>	<p>1.편지쓰기(p.6, p.8) 2.스포츠관련(p.16, p.27, p.145) 3.낚시하는 모습(p.42) 4.전자상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사진(p.119)</p>	<p>*일기쓰기(p.20, p.22) *환경문제(pp.62-64) *부모효행과 경로(p.103)</p>